

오전(1부, 노량진) 6시

오전(2부) 7시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사구 공향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Jesus Centered News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5년 3월 16일 (제1297 호)

1부(오전) 7시

2부(오전) 10시

3부(오후)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봉 우 결 렴

다수결로 하자고?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누구와 의논했는가? 그의 독자를 하나님께 드릴 때 아내와 의논했는가? 모세가 출애굽하여 40년 광야 길을 갈 때 누구와 의논했는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누구와 의논했는가(갈1:16)? 예수님이 제자들과 의논하신 적이 있는가? 아니다. 그들은 기도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에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맛보았다. 그러나 아담이나 사울, 가룟 유다는 사람들과 의논하여 결정하고 행함으로 죄를 낳았고, 그 대가를 똑똑히 치렀다.

맞다. 하나님의 일은 회의나 의논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을 이뤄주신다.

내 목회 40년, 나는 문제가 있을 때, 힘들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불가항력의 상황에서 사람과 의논한 적이 없다. 그저 낙타무릎이 되도록 기도했고, 말씀에 순종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때마다 사람의 귀로 들어보지 못하고, 사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기적을 내게 나타내셨다.

요즘 교회가 힘을 잃었다. 왜 일까? 그것은 모든 문제를 회의를 통해 다수결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맹점이다. 진리는 절대 다수결에 있지 않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가나안을 탐지하러 갔던 열두 명의 두령 중 열 명은 그 땅에 가면 우리가 다 죽을 것이라고 했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이 주신 몇진 땅이라고 했다. 다수가 옳았는가? No.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곧 850대 1의 정면대결을 펼쳤을 때 다수가 승리했고, 다수가 옳았는가? No.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과 함께 길르앗 라못에서 아람 군대와 전투를 하게 됐을 때 시드기야를 비롯한 400여 명의 선지자들은 승리를 예언하며 전쟁을 부추겼고, 미가야 선지자 한 사람만이 그들이 패한다고 했다. 다수의 말이 옳았던가? No.

하나님의 일은 다수결에 있지 않다. 회의할 시간에 함께 기도하라. 그리고 순종하라. 하나님이 분명히 기적을 나타내시리라.

지난 8일, 총회장 목사님께서서는 인천 청년부 토요일예배를 인도하시며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불어넣어 주셨다. 서울에 이어 인천 청년부 예배까지 직접 인도하시는 것은, 2025년 반드시 예수중심교단의 젊은이들이 전대미문의 축복을 반드시 받길 원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강화도령으로 유명한 조선의 제 25대 임금 철종을 알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유배로 일가족이 강화도에서 평민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현종이 후사가 없이 죽자 족보를 좇아 갑자기 평민에서 왕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시어 마귀에게 속박된 인간을 죄에서 해방하는 개혁

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은 ‘강화도령 철종’이라는 쉬운 비유를 통해 우리의 신분이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설명하시고, 이어 우리 교단에서 실제 입을 크게 벌려 성공한 사례들을 말씀해주셨다.

“영어 통역관 박보배 집사의 아들 매튜와 앤드류를 알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미국 마이애미에서 김밥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과거 한국에 있을 때 현실의 암울한 상황에 몹시 우울해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그들을 불러내어 한강과 관악산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매튜야! 앤드류야! 저 한강을 지으신 이는 누구냐? 저 관악산을 지으신 이는

의 것을 활용하여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언제까지 강화도령으로 살 생각입니까? 입을 벌리면 물이 들어옵니다. 내가 입을 크게 벌리면 만물이 다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시81:10). 물속에서 물을 찾는 어리석을 물고기가 되지 마십시오. 난 요즘 매일 영어를 공부하고 미지의 세계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천에서 예배를 인도하지만 서울 및 전 세계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어찌 이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유튜브의 세계가 이렇게 무궁무진한 것처럼 고착된 생각의 틀을 깨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걸맞는 큰 꿈을 가지고 기도하며



인천 청년부 토요일예배 (2025. 3. 8)

을 단행합니다. 죄인이던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신분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강화도의 나무꾼으로 살던 강화도령을 왕으로 만든 것처럼, 우리는 노예로 살았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위하여 소나 양 등을 잡아 제사를 지내는 복잡한 과정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의 제사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했습니다. 그러니 고착된 생각의 틀을 깨고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삶을 사십시오. 변화가 두려우면 현실에 만족하고 살아야 합니다. 물속에서 물을 찾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무궁무진한 상상력

누구냐? 이는 너희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아니냐? 그렇다면 한강이 너희 것이요, 관악산이 너희 것이 아니냐! 너희가 고착된 생각의 틀을 바꾸기만 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이렇게 꿈과 희망을 불어넣었더니 지금은 미국에서 김밥집을 운영하며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그때 함께 한 강 갔던 일을 잊지 못해요. 이제 저는 목사님이 세계 70여 개국에 복음을 전하시는 것처럼, 전 세계에 김밥 프랜차이즈 1,000개를 세우는 사람이 될게요.’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는 플랫폼 기업들을 보십시오. 아마존이나 우버택시 등 자기 것은 하나도 없으면서 남

도전하십시오. 목적이 나의 삶을 이끌면 절대 피곤하지 않은 법입니다. 배를 만들기 전에 바다를 동경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꿈을 이뤄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총회장 목사님을 통해 상상력의 원천을 마음껏 부여받은 인천의 젊은이들은 다음에는 목사님을 인천예수중심교회 대성전에서 모시고 싶다며 반드시 대성전을 채워겠다고 말했다. 그렇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현실이라는 고착된 틀을 깨고 미지의 세계에 도전하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주신다(빌4:13).

송현해 생도

charisma0691@hanmail.net

교단 목회자 세미나

3월 17일(월)-19일(수), 예루살렘기도원, 02.533. 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사43:1~13)

두려워 말고 하늘을 침노하라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하느니라”(수1:9).

목사 안수를 받던 날,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입니다. 왜 하필 그날 이 말씀을 주셨을까 생각해 보니 하나님은 장차 저에게 펼쳐질 목회 길이 눈 덮인 산야, 물 없는 사막의 길임을 아셨기에 두려워 말라고 미리 당부하신 것이었습니다. 40년의 목회 여정, 수많은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고, 무수한 핍박도 받았고, 최루탄으로, 몽둥이로, 칼로, 권총으로 협박도 무수히 받았습니다. 경찰, 검찰에 조사를 받기도 했고, KGB에 끌려가기도 했고, 재판정에 서기도 했으니 놀라고 두려울 수도 있었지요. 그러나 그날 주신 말씀이 있었기에 저는 어디서든, 어느 상황에서든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이 떨어지면 두려움이란 불청객이 온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세계정세도 그렇고, 우리나라 상황도 그렇고, 갈수록 악화되는 세상도 그렇고, 매일 경쟁해야 하는 개개인도 그렇고... 그러나 믿는 자는 다릅니다. 왜냐? 하나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28:20)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두렵습니까? 그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우리에게 주사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요14:16). 이 얼마나 든든한 약속입니까. 더욱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롬8:14), “너희가 아들인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갈4:6~7)고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유업을 이을 상속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이 세상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며, 만물의 주인이시요, 인간을 창조하신 분 아닙니까? 만물과 만인 위에 계시는 분 아닙니까? 그분이 내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가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우리와 늘 함께하시는데 두려울 게 됩니까? 두려운 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

이요, 이는 곧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라고 시인하는 꼴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던 시절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히 얼굴도 못 들던, 그분의 이름조차 입 밖으로 내기 어렵던 시절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 하나님을 믿었기에 바로 앞에 섰던 것입니다. 어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것이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담대히 들어간 것이고,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담대하게 들어간 것도 다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를 보십시오.

산헤립이 쳐들어왔을 때 두려워하는 그의 백성들

을 향하여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앗수르 왕과 그 좇는 온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다”(대하32:7)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니까요. 그분이 내 아버지라니까요. 그런데 왜 모세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담대하지 못합니까? 자식이 위험에 처했을 때 뒷집 지고 나 몰라라 하는 아버지가 있습니까? 자식이 힘들어 죽겠는데 콧노래 부르고 있을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육신의 아비도 그러지 않을 터인데 우리 하나님이 가만 계실까봐 두려운 겁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사43:2),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

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이니라”(사41:10~13).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담대히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환난이나 곤

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롬8:31~35)라고

말하며 예수를 전한 것이고, 저 또한 핍박 중에도 이 길을 담대하게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우리 아버지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유업을 누가 잇습니까? 아들이 잇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녀가 된 우리입니다. 그래서 세상 만물이 다 우리 것인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 때 아예 우리를 위해 만드시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이젠 세상 사람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고전3:21). 그러나 그 앞에 전제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입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주관자가 누구인지, 만물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라는 말씀입니다. 그걸 몰라서 사람들이 재력가에게, 지력가에게, 권력자에게 굽신거리고,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

씀합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찌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흠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도다”(시146:3~4). 글쎄, 어제 만난 사람, 오늘 만난다는 보장이 없더라니까요. 하나님이 부르면 돈 빌려준다고 했던 사람도, 세상을 휘두르던 사람도 그냥 갑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향해 이렇게 통탄하십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여늘 나여늘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사51:12). 저는 눈 같은 목사, 오른팔 같은 장로가 떠난다고 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간다면 카펫을 깔아주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떠난다고 교회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야 망하지, 돈이나 권력 있는 자가 떠난다고 망하지 않습니다. 되레 의지하던 그 사람이 떠나야 잘 됩니다. 우리가 진짜로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마10:28).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사람을 두려워하면 울무에 걸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절대로 안전하다는 것입니다(잠29:25).

물속에서 물을 찾는 어리석은 물고기가 되지 말라

여러분, “아브람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창15:1)고 하셨던 하나님, “나는 네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창26:24)고 이삭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창28:15)고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창39:23)며 요셉과 함께 하사 지키신 하나님,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수1:5~6)고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내 아버지입니다. 그 하나님이 늘,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하십니다. 그러니 두려워 말고 담대하십시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사12:2). 할렐루야!



총회장 이초석 목사

:: 객원컬럼 ::

내 생각이 하나님의 선호에 맞는지?

사람들은 자기 기분이 좋으면 철야도 하고 새벽에 예배도 나오며, 또 금식도 하며 산에 가서 기도도 한다. 기분이 좋으면 열심을 다해 바치기도 하지만, 기분 나쁘면 그만 두어 버리는 등등, 모두가 자기 마음 가는 대로하려 할뿐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는다.

이처럼 사람은 변덕이 심하고 의지가 약하다. 그러기에 사람은 약속이 변하고, 계획이 변하고, 결심이 변한다. 이렇게 인간은 믿을 수 없다. 뜻을 가졌으나 그 뜻이 곧 깨어져 버린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뜻이 영원하고 변치 않는다.

하나님은 미움과 시기, 질투와 분노, 싸움과 분열, 걱정과 염려, 두려움과 불안, 낙심과 절망, 의심과 회의 등의 부정적인 생각들을 아주 싫어하신다. 특히 의심과 회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생각과 성품, 말과 행동을 가리켜 ‘죄’라고 말하고 있다.

당신이 지금 무슨 열악한 환경이나 암울한 처지에 놓여 있든지 간에, 부정적인 생각이 당신을 지배하고 있다면 당신은 죄를 받아들인 죄인이다. 하나님은 죄인을 싫어하시며, 죄인을 가까이 하실 수 없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생각들을 싸워서 몰아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하실 수 없다.

사람들이 남을 헐뜯고 멸시하며 남의 허물을 드러내어 비방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를 높이려는 것이다. 자기의 수준을 높이 생각하고 자기를 의롭게 여기어 자기 의를 나타내려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전혀 주님과 무관한 것이다. 가능하면 자기 자신이 낮아질수록 주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다.

‘이긴다는 것’은 남과의 경쟁에서 이긴다는 상대적 개념이 아니라 자신과의 싸움(겉사람과 속사람)에서 이긴다는 뜻이다. 예수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갖은 모욕을 참아가면서 때를 기다리신 것같이, 우리의 우리도 어떠한 고통이나 억울함을 당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사랑하고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여야 한다.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이 우리 각 사람에게 역사함으로 진정한 신자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천사가 있는데도 굳이 여러가지 제한도 많고 약점 많은 인간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신다. 부족한 것이 많은 인간을 통해서 무한한 복을 부어주려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지를 생각해야한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마12:50).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마7:21).

신기류 목사

:: 신앙논객 ::

예배하기 위해

‘예배(禮拜)’를 한자로 풀면 ‘예의를 갖춰 절하다’라는 뜻이다. 영어로는 ‘Worship’과 ‘Service’가 함께 쓰이는데, ‘Worship’은 ‘가치’라는 뜻을 가진 ‘Worth’라는 단어와 ‘신분’이라는 뜻을 가진 ‘-ship’이라는 단어의 합성어다. 한 마디로 그 신분에 합당한 가치를 돌려드린다는 뜻이다. ‘Service’는 우리말로 치면 ‘섬김’이란 뜻으로, 섬김의 대상이 되는 상대방을 지극 정성으로 섬긴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 모든 단어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예배’를 받으시는 주체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바로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주관자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새 학기가 되면 청년들에게 거듭 강조하며 교육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의 가치이다. 학업이나 직장에서의 일정 때문에, 자기 계발이나 사회생활, 또는 인간관계 때문에 ‘예배’가 삶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예배가 단순히 교회에서 진행되는 어떤 프로그램의 일종이거나 사람들과의 친목 모임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시간이고 의식이기에 중요한 것이다.

약속이나 일정을 잡을 때 우리의 우선순

위는 상대방이 누구이나에 따라 달라진다. 친구와 모처럼 약속을 잡았어도 나에게 성직을 주시는 교수님이나 월급을 주시는 사장님이 그 시간에 나를 좀 보자고 한다면? 당연히 친구와의 약속을 나중으로 미루고 그 일정을 우선으로 할 것이다. 그렇다면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과의 약속 시간 아닌가? 많은 청년들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간과하고 실수한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라면 그의 삶에는 ‘예배’가 최우선순위가 될 것이다.

구약성경의 말라기 선지자는 경고한다. “만군의 여호와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쾌스러운고 하며 코웃음하고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와 말씀이라”(말1:13).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온전한 것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려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창조되었음을 잊지 말라. 예배를 받으시는 분에게 합당한 가치와 섬김을 올려드리자.

신혁주 전도사

:: 아름다운 인생 ::

내 뜻 말고 하나님 뜻대로

한 청년이 상담을 요청해왔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사랑은 그대로인데 요즘 들어 마음이 불편한 이유를 모르겠다. 나는 청년에게 ‘지금 하는 헌신도 좋지만,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것은 예배의 자리에 나와 목사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라 깨닫고, 순종함으로 살아내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주었다.

성숙한 신앙인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뜻대로 섬길 줄 아는 자다. 성경에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셨다(삼상 15:22). 사울 왕이 드린 제사는 이방신도 아니고 하나님께 드린 제사였는데도 하나님은 이 일로 사울 왕을 완전히 버리셨다. 하나님 뜻대로 드린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웃사의 일도 그렇다. 법례를 붙잡은 것이 사람의 눈에 충성 같지만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기에 대가를 치르고 말았다.

최근 용서하라는 설교를 들었다. ‘나도

용서할 사람이 있는데...’ 생각하면서 무의식중에 내가 손가락을 꼬집고 있었다. 쉽지 않았나 보다. 그러나 죽어가면서도 용서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니 내 마음도 점차 녹았고, 마침내 진심으로 용서하겠다는 기도에 도달했을 때, 방금까지 답이 심하게 들어 좌우로 돌아가지 않던 목이 순식간에 깨끗해졌다. 그뿐만 아니라, 같은 날 오후는 내 가족이 꽤 심각한 단백뇨 증상으로 중환병원에 이어 대형병원에서 받은 정밀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다. 용서만 했는데도 내 목이 낫자 하던 대로 귀신을 쫓았다. 당연히 신장에 전혀 이상이 없고 깨끗하다는 결과다.

용서와 순종에는 엄청난 축복이 세트로 붙어있다. 올해는 내 뜻 말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보자. 전대미문의 축복이 반드시 따라온다.

김혜리 교육전도사



:: 생명의 말씀 ::

‘이미’와 ‘아직’ 사이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죄를 지어서가 아니다.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미’ 물에 빠져있다. 마치 타이타닉호가 침몰하여 물에 빠져가는 것과 같다. 타이타닉호가 침몰했을 때 구원선이 와 물에 빠진 사람들을 찾았다. 예수님이 구원선으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예수님은 구원선에서 구원의 밧줄을 우리에게 던지셨다. 사람들이 죽는 이유는 구원선에서 내민 밧줄을 잡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에 빠진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내민 구원의 밧줄을 잡으면 된다.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 죽기 전에 잡아야 하고, 그 구원의 밧줄을 잡고 죽을 때까지 그 밧줄을 절대 놓지 말아야 한다. 이 구원의 밧줄을 그 어떤 유혹에도 붙잡고 있어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초림)으로 종말은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사망의 세력 마귀가 세상을 다스린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세력이 무력화되었고, 승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심판을 받고 태어난다

다. 우리는 ‘이미’ 심판을 받았지만 ‘아직’ 심판을 집행하지 않은 것뿐이다. 심판이 집행유예된 것이다. 그러나 그 기간에 예수님을 믿으면 믿는 그날 집행유예는 집행유예인데 집행유예의 내용이 바뀐다. 심판의 집행유예에서 구원의 집행유예로 바뀐다. 우리는 구원의 집행유예 기간에 긴장하여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한다.

믿음과 행함은 결코 나눌 수 없다. 믿음 따로 행위 따로는 없다. 믿었으니까 행동하는 것이다. 누군가 ‘불이야!’ 할 때 불났다고 믿는다면 뛰쳐나가든, 물을 뿌리든 행함이 뒤따른다.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믿으면 방주를 준비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면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다. 믿었는데 행위가 없다면 거짓말로 믿는 척했다는 것이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마7:21) 하셨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다. 구원의 밧줄을 어떤 이유로도 절대 놓아서는 안 될 것이다. 할렐루야!

임택함 목사

가장 좋은 하나님의 때

올해로 팔순을 맞이한 노인이 있습니다. 그는 반평생 교회를 나갔다가, 안 나갔다는 반복했지요. 젊었을 때 그는 죽을병에 걸렸는데 아내와 교구 식구들의 간절한 기도로 살아난 경험이 있습니다. 그를 수술했던 의사는 크리스천이 아니었음에도 ‘하나님이 고치셨다’라고 시인했지요. 세월이 흘러 그의 자녀들이 대학생이 되었을 때, 한밤중에 자다가 정신을 잃은 그는 눈앞에 스쳐 지나가는 주마등을 보며 ‘이렇게 죽는구나...’ 생각했답니다. 그때 거실에서 기도하던 아내가 이상한 느낌을 받아 안방으로 달려갔고, 사경을 헤매는 그를 깨워 귀신을 쫓아내고 자녀들을 불러 합심 기도를 했죠. 그는 또 한 번 살아났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예수가 어디 있느냐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했고, 좀처럼 믿음이 자라날 기색이 보이지 않았습다. 예수 믿는 아내를 오랫동안 핍박하며 못살게 굴었고, 그러다가도 아내를 따라 가끔씩 주일에배에 출석하곤 했습니다. 어느덧 노인이 된 그는 1년에 몇 번 성탄

절이나 전도 예배 같은 행사가 있을 때만 가족들 등쌀에 못 이겨 교회를 나갔습다. 2024년 10월 9일 한글날 시청에서 열린 평화통일 기도성회도 본인 의지가 아니라 아내가 가져고, 가져고 해서 억지로 따라간 거였지요. 팔들이 미리 잡아둔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린 그날, 그에게 예상치 못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날 이후로 매주 빠지지 않고 주일에배에 출석하게 된 거지요. 스스로 원해서 말입니다. 시청 집회에서 그의 심령을 뒤흔든 건 바로 그곳에 모인 노인들이었습니다. 저렇게 많은 노인이 천국에 가려고 여기저기 먼 지방에서까지 올라와 예배드리는데 나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갈급함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저의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기를 계속 기도해왔으나 워낙 완고하신지라 과연 그런 날이 올까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큰언니가 아버지에게 교회 오시는 날마다 용돈 드리겠다고 꼬시기도 했지만, 그것

도 오래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웬걸, 이제는 자진해서 교회를 나오시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 서울과 인천을 오가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불평 없이 주일에배에 나오고 계십니다. 고백하자면, 저는 시청 집회에서 아무런 은혜를 받지 못했었습니다. 그날 두 시간 전에 미리 가서 아버지 자리를 맡아두었는데, 갑자기 한 어르신이 와서 막무가내로 그 자리에 앉는 게 아닙니까. 맡아둔 자리니 비켜달라고 정중히 말씀드렸더니 버럭 역정을 내시더군요. 연세 많은 아버지를 오랜만에 전도해 모시는 거라며 자리를 맡아둔 사정을 말씀드렸지만 높은 언성만 돌아왔습니다. 은혜받으러 왔으니 똑같이 화내지 말자고 다짐하며 겨우겨우 다른 자리를 찾아 옮겼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였지만 사실 제 속은 부글부글 끓어오를 대로 끓어오른 상태였지요. 제 마음만큼이나 주변이 무척 시끄럽고 어수선했기에 아버지도 저처럼 은혜를 받지 못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버지 눈에는 막무가내인 노인들이 보였던 게 아니라 천국 가려고 예배를 드리는 노인들이 보인 것이었습니다. 그들처럼 나도 열심히 교회 다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생각해봅니다. 사람의 때와 달리 하나님의 때는 늦는 법이 없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에는 오차가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십니다. 바울의 말이 떠오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우리가 할 일은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그저 멈추지 않고 심고 물을 주는 일을 깨닫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는 가족을 위해 오늘도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의 씨앗이 가장 좋은 하나님의 때에 풍성히 열매 맺히길 소망합니다.

신은혜
dopal0203@naver.com

:: 한국 교회사 ::

콜레라에서 조선을 구한 선교사

올리버 에비슨 선교사(1860~1956), “식사 전 반드시 손과 입안을 깨끗하게 씻으십시오. 이를 준수하면 콜레라에 걸리지 않습니다.” 하며 콜레라에서 조선을 구한 선교사이다. 1887년 토론토의과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토론토 시장의 주치의로 할 만큼 우수한 인재였다. 1893년 7월 감리교회 소속이었던 에비슨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교파는 상관없다’며 미국 북장로회 파송으로 한국에 들어왔다. 토론토에서 의사로서 평안한 생활을 보장 받은 상태였으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땅에 왔다. 그가 한국에 올 때는 부인과 3명의 자녀, 그리고 임신한 아이까지 합해 6명이 함께 왔으니 대단한 결심이었다. 1892년 안식년으로 미국에 체류하던 언더우드가 토론토대학 선교 모임을 이끌던 에비슨의 초청을 받았고, 이곳에서 한국의 선교 경험을 들려준 것이 계기가 되었고, 제중원을 담당할 의사(헤론 순교 이후 책임자 물색)가 되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한국행을 결심하였다. 당시 캐나다에는 해외 선교사 후원 제도가 없어 미국 북장로교 후원 아래 내한했다. 그가 한국에 들어왔을 당시 제중원의 상황은 가장 어려운 시기였다. 사실 제중원은 존페의 기로에 놓여 있었다. 알렌

이 본국으로 돌아가고, 후임이었던 헤론이 이질로 사망하면서 병원 운영에 문제가 생겼다.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제중원의 운영을 두고 조선 정부와 6개월에 걸친 협상을 벌인 것. 결국 에비슨은 제중원을 미국 선교부로 이관했다. 왕립병원이었던 제중원이 진정한 선교병원으로 거듭나는 순간이었다. 그래서 제중원에서 아침에 배, 기도회, 주일에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1895년 한국에 콜레라가 유행할 때 그는 방역 책임자가 되어 한국인 의학과와 함께 체계적인 방역활동을 하였고, 다수의 의학 서적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후학을 양성하였다. 그는 콜레라가 퇴치될 무렵, 신분차별 철폐법을 백정에게도 확대해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하여 내무대신 유길준으로 하여금 철폐 포고문을 붙이는 데 성공하였다. 1899년 안식년을 맞아 캐나다에 머물면서 선교대회에서 조선 선교에 대한 강연을 했는데, 이때 클리블랜드의 실업가 루이스 세브란스로부터 재정 후원을 약속받았다. 그의 후원으로 1904년 한국 최초의 현대식 병원이 건립되었는데 이것이 세브란스 병원이다. 1909년 세브란스의 아들과 딸이 추가 후원하여 <사립 세브란스의학교>가 탄생하고, 1913년에

는 세브란스 연합의학교로 교명을 다시 변경하면서 인턴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1917년에는 사립 세브란스연합의 학전문학교로 인가를 받았으며, 1922년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다. 이후 여러 독립운동에도 참여하였으며, 1940년대 후반에는 연희전문학교와 합병하여 연세대학교가 되었다. 그는 안식년을 마친 1900년 한국으로 돌아와서 의사 양성교육을 재개하였다. 7명의 한국인 청년에게 엄격한 의료교육을 시켜서 1908년 정부로부터 최초 한국인 의사면허를 허가받았다. 이들이 최초 의사 김필순, 김희영, 박서양(백정 기독교인 박성춘의 장남), 신창희, 주현직, 홍석우, 홍종은 7명이다. 간호사는 1906년 에스더 윌즈가 설립한 세브란스 병원 내 <간호사 양성학교>에서 육성하였다. 1935년, 20여 년 사역한 세브란스 병원장 자리를 오금선 교수에게 양도하여 한국인 스스로 자립적으로 병원을 운영토록 하고, 76세에 일선에서 은퇴하였다. 한국인을 통한 의료활동이 되어야만 자립적 의료가 가능한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는 은퇴할 때까지 352명의 의사와 165명의 간호사를 배출하였다. 1935년 선교사를 은퇴한 에비슨 박사는 미국으로 돌아가 기독교인친한회 총무 겸 재무를 맡아 대한민국임시정부 승인

과 독립운동 지원을 호소했다. 에비슨은 교육 사업도 활발하게 전개하여, 1915년 언더우드가 경신학교 대학부를 설립하는데 협력하였으며, 1916년 언더우드가 건강 문제로 미국으로 돌아가자 그가 교장이 되어 활동했다. 경신학교 대학부는 1917년 사립 <연희전문학교>로 인가받았다. 1916년부터 1934년까지 18년간 연희전문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며, 고등교육에 헌신하였다. 현재 연세대학교는 1957년 1월 연희전문학교와 세브란스병원을 합칠 때 첫 자를 따서 만든 이름이다. 33세의 젊은 나이에 한국에 부임하여 43년 인생 대부분을 한국 선교를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헌신하다가 1956년 8월 29일 향년 96세로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소천하게 된다. 그는 평생 모든 부와 명예를 떨쳐버리고 포용력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사업’을 강조하며 교파를 초월한 교회연합운동의 선구자로 한국을, 한국인을 사랑한 선교사였다. 에비슨이 한국에서 마지막 채플 시간에 남긴 성경 구절이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찌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갈6:9).

김종춘 목사
kkd9191@hanmail.net

서울성전 건축헌금 계좌안내

국민은행 026401-04-297823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 계좌 송금 시 성함과 소속교구(교회) 순서로 기입해주세요